

- 2009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성료 -

제44회 전기의 날 기념 부대행사로 개최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강촌 소재 엘리시안(구 강촌리조트)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등 400여명의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녹색기술,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육성 제도를 소개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IEC 부합화, 신기술의 반영을 비롯한 기술 기준 선진화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컨센서스로 구성되었다.

워크숍은 특별강연에 이어 부대행사인 '제4회 한·일 전기기술교류 컨퍼런스'와 '풍력발전 표준화 워크숍'을 포함하여 전기기술 세션(A), 발전기술세션(B) 및 그린에너지기술 세션(C) 등 5개 세션으로 나누어 총 50여 편의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개적인 토론 및 기술교류를 위한 장도 마련되었다.

특별강연으로 '중국전력산업 표준의 국제화 대응에 대한 현상과 과제', '에너지자원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중국전력기업연합회 허송림 주임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한진현 국장 등이 각각 발표했다.

풍력발전 표준화 워크숍에서는 풍력발전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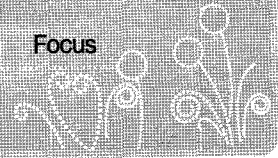
화 및 발전용 풍력설비 기술기준, 풍력 터빈의 국제표준 현황, 풍력발전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 되었다.

특히, 제4회 한·일 전기기술교류컨퍼런스'는 대한전기협회와 일본전기협회가 중심이 되어 전기관계 사업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여 양국의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양국 전기인의 교류확대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0월에 제1회 대회가 일본 동경에서 일본전기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래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셔틀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IEC 60364 및 IEC 61936-1의 도입에 관해 한·일 전기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의견교환이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한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IEC규격에 의한 TNS접지방식 검토 및 대규모 접지극 접지저항측정 매뉴얼"을 포함한 2건, 일본은 일본전력중앙연구소의 "기술기준의 IEC정합화에 관한 최신 정보"를 포함한 3건이 발표되었다.

이 행사의 주요 참가자는 한국에서 지경부 관계자를 비롯한 산업계, 학계, 협·단체 전기전문가 80여명과 일본전기협회 기술부 모리 상무이사를 비롯한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일 전기인 친선의 밤"을 마련, 친목을 공고히 했다.

대한전기협회 박천진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세



계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전기분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WTO/TBT 협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개선 사항 제시 등 많은 관심을 보여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한진현 국장은 격려사에서 “전기기술과 그린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기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국내·외 기술 환경변화 및 국제표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전KDN(주) 전도봉 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전기인들이 국가전력 과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피력했다.

한국서부발전(주) 손동희 사장은 계속된 축사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수준을 글로벌 레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가꾸는 노력을 지속하고,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틀을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한 정보공유를 통해 훌륭한 기술기준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번 행사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과 협회 감사패,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 지식경제부 장관상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남우 ▲한전KPS(주) 실장 구능모 ▲한국전력기술(주) 차장 송이철 ▲한국서부발전(주) 과장 방흥식 ▲삼성물산(주) 부장 박상규 ▲전기공사협회 팀장 김재현 ▲(주)태영건설 부장 심용식 ▲한국동서발전(주) 과장 김영일

### 공로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전) 화력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옥대

### 감사패

▲(주)진우씨시스템 대표이사 고재완  
▲한전KDN(주) 대표이사 전도봉

### - 전력산업 이동홍보관 운영 -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하는 ‘2009 전력산업 이동홍보관’ 제2회 행사가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2009 전북과학축전’에 참여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KEA**

KOREA ELECTRIC ASSOCIATION

Focus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북도청 광장 일원에서 펼쳐졌으며,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는 10만 여명의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관람객들은 발전체험헬스자전거(싸일렉)를 이용해 직접 전기를 생성시켜 가전제품을 작동시켜 보며 그 동안 잊고 지내던 전기의 소중함에 대해 느낄 수 있었으며,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모형 등을 통해 미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력시장'에서 전기가 일반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함께 전시된 전기자동차에도 발길이 이어져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친환경 전기기술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 전기협회, 전기사랑 마라톤 대회 참가 -

대한전기협회는 4월 11일 '제44회 전기의 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된 '전기사랑 마라톤 대회'(전기신문사 주최)에 박천진 협회 부회장 등 3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전기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

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 - KEPIC 인증서 수여식 -

대한전기협회는 4월 14일 협회 부회장실에서 대한전기협회 박천진 부회장, 안호현 KEPIC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케이티중공업에 대한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은 우로부터 박천진 부회장, (주)케이티중공업 이영춘 부사장.

